

재미보는 무기장사

프랑스는 소리없이 째째한 재미

제3세계에 대한 무기수출

원래 생산량이 많고 코스트, 품질 모두 유리했던 미국제 무기는, 국방 예산의 삭감에 의해 수출드라이브가 걸려, 제3세계의 주된 무기의 공급처였던 프랑스, 영국, 러시아등을 뒤로하고 1993년에 드디어 세계무기수출의 약60%를 점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미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업환경, 예를들면 기업의 매수, 합병(M&A)등의 세파를 꽤 일찍부터 받아온 것도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체 방위산업의 재편성이라는 점에서 가장 느슨한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국방장비청(DGA)」에 의한 국유 국영기업이 부지기수이다. 그런데 그 프랑스가 94년의 제3세계에 대한 무기수출에서 미국을 추월했다. 탈 냉전시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전년인 93년에 미국은 154억 달러이며 프랑스는 38억 달러였다.

그것이 94년에는 각각 61억달러와 114억달러가 되었으며 프랑스는 제3세계에 대한 무기수출 총액 254억달러중 45%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24%였다.

걸프전쟁의 열기도 사그러지고 제3세계에 대한 무기수출 총액은 전년의 255억 달러보다 약간 줄어 들고 있어 수출금액 보다도 축소해 가는 파이의 배당쪽이 중요시 되고 있다. 93년에 미국이 전체의 60%이상이었으며 프랑스는 15%에 불과했던 것을 볼때 프랑스의 급증과 미국의 급감이 이해될 것이다.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프랑스는 3배, 미국은 반이하로 떨어졌다. 모두 최근 발표된 미국의회조사국(CRS)의 연도 보고 「발전도상국에 대한 무기이전 1987-1994」에 의한 수치이다. 금액으로는 미국이 61억 달러 정도가 되며 러시아도 94년에는 46억 달러(전체의 18%)에 달했다. 전년의 12억 달러의 약 4배로 급증했으며 시장점유율도 전년의 5%에서 18%로 증가했다.

인프레가 계속되고 루블의 환율도 하락하는 형편인 러시아에서는 같은 46억달러라도 그 가치가 미국과는 다르다. 이것이 식량을 수입하는 귀중한 외화가 되기 때문이다.

걸프 전쟁으로 평판이 폭락하여 제3세계로의 무기수출이 암담하게 된 러시아였으나 킬로급 공격형 잠수함 외에 26대의 수호이-27전투기

를 지난날의 숙적 중국으로,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18대의 미그-29전투기를 전력을 다해서 판매한 결과 94년에 급증했다고 한다.

수지가 맞는 것은 영국, 중국, 이탈리아등 기타 각국이다. 여하튼 프랑스, 미국 러시아의 3대국이 전년의 85%를 넘어선 87%를 점하게 되어 기타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독일등은 수출이 제로이다.

이 3대국 독점텃세는 순서가 미러, 불로 변하나 1987년에서 1994년까지 비교해 봐도 변한게 없다.(표 1 및 2 참조)

프랑스의 수출 품목

흥미로운 것은 각국의 수출 품목이다. 미국은 세계 제1의 해군국인데도 불구하고 함정 수출은 1987년에서 1994년까지 8년간 전무한 상태이며 그리고 통상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지 않는 관계도 있어서 잠수함의 수출도 제로상태다.

그 대신 세계의 왕자로 자인하는 항공 우주에서는 제3세계의 수출에서 단연 톱이다. 물론 서방측 제국에 대한 수출도 항공우주, 즉 항공기와 미사일로 단단히 돈벌이가 되

표1. 1994년 계약된 제3세계에 대한 무기수출 5대국

국명	금액(억달러)
프랑스	114
미국	61
러시아	46
영국	6
중국	5
이탈리아	2

표2. 1987~1994년 계약된 제3세계에 대한 무기수출 5대국

국명	금액(억달러)
미국	831
소련/러시아	714
프랑스	320
영국	285
중국	132
독일	56

며 일본이나 독일이 강대국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점을 바꾸어 받는 금액 기준이 아니고 수출수량으로 볼때

미국도 구소련/러시아에는 이기지 못한다.

최근 8년간에 지대공 미사일은 10,850기, 3,307기 지대지미사일은 2,010기 0, 전차는 4,830량, 1,809량, 장갑차도 8,110량 1,957량으로 러시아 측이 많다. 미국이 자랑하는 헬리콥터도 760기 315기로 반이다. 엔고와는 반대로 루블 약세는 소련이 허둥대던 그전 부터 생겨난 현상이므로 수출드라이브가 걸린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같이 취약한 곳이 없는 백화점형이다.

이와 같은 미, 러의 「비상대성」을 머리에 넣고 94년에 시장세의 톱으로 진출한 프랑스에 대해 고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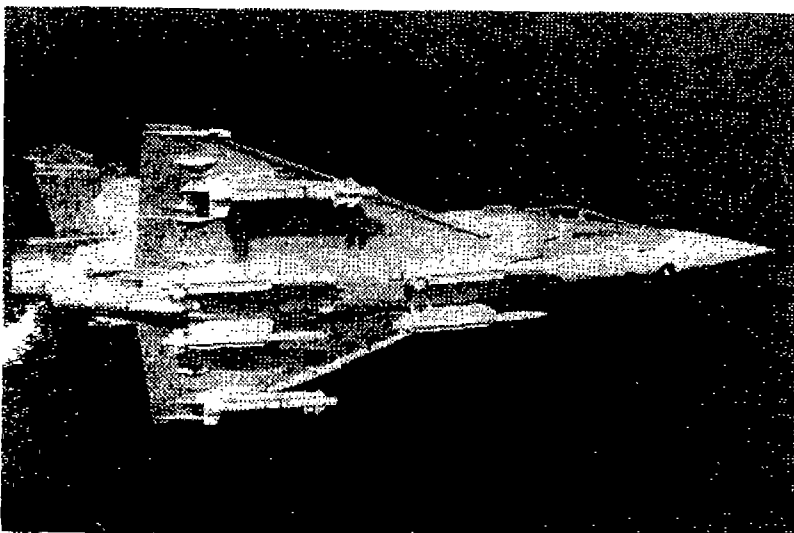
프랑스도 미국과는 달리 올라온드 수출국이다. 이상한 것은 육군국의 이미지가 강한 나라인데도 함정 수출이 많다. 주요 수출 함정이 건

조 되는 곳은 균형으로서도 유명한 롤리안이다. 세계의 어느곳 이라도 좋은 항구 같으면 조선업이 발달하게 되나 여기는 프랑스 국방장비창 예하의 공창(DCN)이 있는것으로 유명하다.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앞둔 7월 8일 대만이 발주한 3척의 프리깃의 첫번 함정이 여기서 준공되었다. 이 함정의 인도는 명년 3월이다. 남아 있는 두척도 진수를 완료하고 의장중에 있다. 그리고 4번함, 5번함이 도크에서 건조되고 있다.

항공기나 미사일에 비교하면 수량이 적어 함정의 수출은 수수하나 한척으로 백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다. 유럽에서는 일본이나 미국만큼 하청기업수가 많지 않다고는 하나 상선이 아니고 전투함정이므로 전자, 무기등 하도급계약 기업은 100개사나 된다.

롤리안공창은 이 건조시리즈를 브라보 계획이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자국의 방위수요가 급락한 시기인 만큼 수주의 기쁨을 나타낸 명명이라고 할 수 있다. 발주처는 「동양의 부국」 대만 뿐만 아니다. 아세안 제국과 같이 경제적으로 부국이 되는 것이 언제일지 모르는 파키스탄이 발주한 3척의 소해정중 2번 함정이 같은 7월 8일에 롤리안에서 진수되었으며 첫번 함정은 92년 9월에 인도 되었다.

이 CRS보고가 요점으로 하는것은 실제 인도가 아니고 무기이전 즉 매매계약의 성립이다. 그러므로 94년



프랑스의 주력 수출무기 미라주전투기

의 수출경쟁에서 프랑스가 톱을 차지한것은 파키스탄에 수출하는 어고스타90형 AIP(대기비의존형추진)방식 잠수함,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 수출용 프리깃함, 카타르 수출용 미라주2000-5 전투기라고 한다.

그리고 스웨덴에 대한 전차 판매에서 독일의 레오파드II에 패배한 프랑스의 르크레르크 전차를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판매에서는 강력한 미국의 M1전차와 영국의 챌린저 전차를 물리치고 성공했다.

무기산업에 구주통합은 없다. 그런데 에어버스와 위성발사 사업은 순조로우나,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미국에 지배되지 않고 육성되어온 프랑스의 항공 우주제품은 아무래도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원래 영국, 이어서 미국의 시장이었던 파키스탄을 잠식해 들어간 것 같이 보여도 항공기는 할 수 없다.

미국이 재빠르게 71대의 F-16을 판매하고 프랑스의 고객국인 UAE에도 F-15와 페트리어트 SAM을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

프랑스의 최대 프로스트레이션은 유럽제국이 조금도 프랑스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미국무기를 매입하고 있는 일이다. 특히 미국 일변도(라고 프랑스는 생각하고 있다)의 영국에는 불만이 크다. 영국은 2년 반이나 검토한 결과 차기공격 헬리콥터를 AH64D 아팻치형으로 결정했다. 채택에서 누락 된것은 같은 미국제인 코브라와 볼, 독 공동의 유러콥터사 제품인 타이거이다.

어떤 기종에도 영국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하기 위한 영국항공기 제조회사 즉 웨스트랜드, GEC 그리고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제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 결정에 의해 영국 뿐만 아니라 영국 제1

의 방위산업으로 성장한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사도 「파트너로 한다는 것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공언하게 되었다.

덕택으로 동사와 프랑스의 마트라사가 설립한 미사일제조합관회사도 원만하게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

무기산업의 구주 통합은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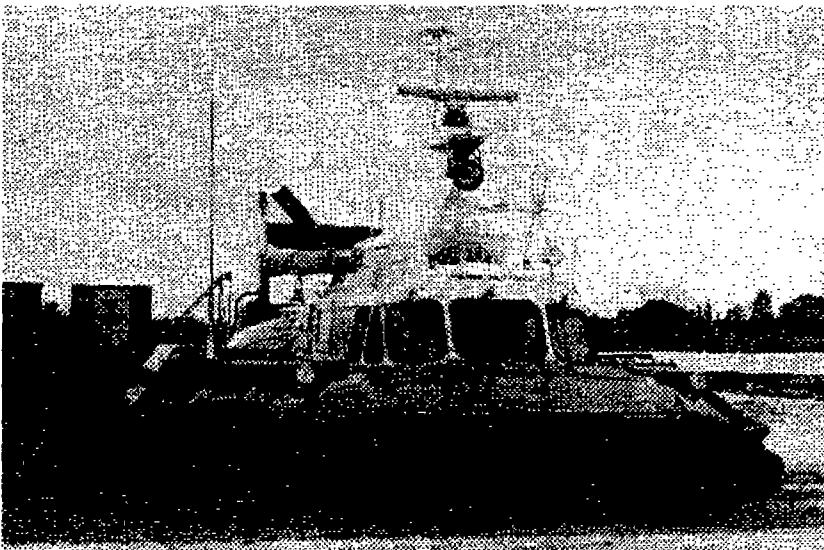
호버크라프트의 재평가

수상·육상은 물론 눈위라도 평탄한 곳이면 주행가능한 군용 호버크라프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호버크라프트란 원래 상품명이었다. 그 때문에 정식으로는 에어쿠션정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기사에서는 알기 쉬운 「호버크라프트」로 이야기를 진행하기로 하겠다.

각국서 도입 결정

몸체(기체, 차체)의 밑에 공기를 보내고 그 압력으로 부상하는 기묘한 치마입은 모양의 탈것이 등장한것은 1950년대의 말기이다. 그 부상용 공기를 고무제의 직물에 싸는 스커트가 개발되어 호버크라프트의 주행성능은 현격하게 향상되었다.

영국은 국책사업으로 호버



민간형의 외모

의 연구에 착수하여 마침내 자동차 30대, 승객 400명을 운반할 수 있는 대형정 SR-N4를 완성시켰다.

또 구 소련도 민간용, 군용 호버를 만들어 해군보병(소련 독특한 병과)부대에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대국 미국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겨우 영국 제품을 연구용으로서 구입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1960년대 중엽부터 베트남전쟁이 격화해짐에 따라 그 태도를 일변하여 전투용 호버크라프트의 실용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자 일본 자위대도 도입을 결정한 새로운 장비 「군용 에어콧선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상륙용과 전투용

군용 에어콧선정의 용도는 완전하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새로운 상륙용 주정으로서의 역할

현재로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 각각 100척, 북한이 50척을 보유하고 있는 호버크라프트의 대부분이 이 역할에 사용된다.

강습양륙함에서 미끄러져 나와 해상을 달려 그대로 해변에 상륙이 가능하므로 참 편리하다.

같은 능력은 수륙양용차량도 가지고 있으나 운반능력, 속도에 격차가 있다. 대형 상륙용 호버같은 전차 1~2대를 적재하고도 시속 100km로 주행할 수가 있다.

미국 해군의 LACV(상륙용 에어콧선정)은 걸프전쟁, 소말리아분쟁에서 크게 활약한바 있다. 일본 자위대가 구입을 결정하고 있는 것도 이 LACV의 최신형이다.

전투용(수륙양용 고속전차)으로서의 역할

호버크라프트를 전투에 투입한 것은 미육군과 이란해군이다. 여기서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전투용 무기로서의 사용 상황을 살펴보자.

(1) 미 육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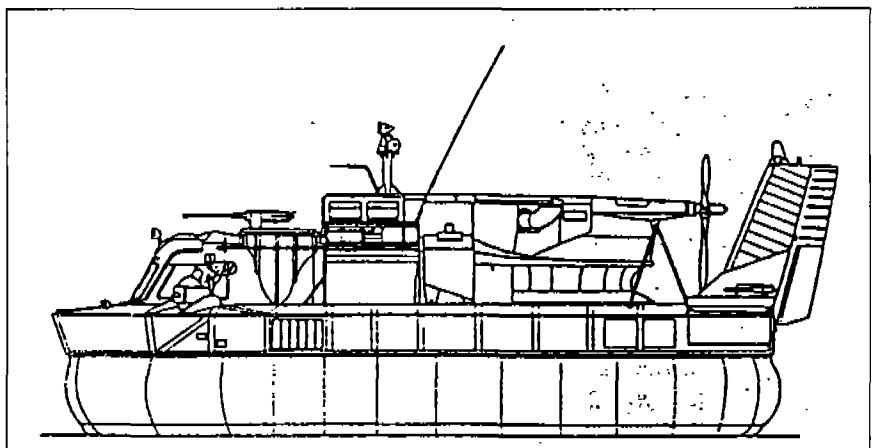
베트남 전쟁중에 해군과 협동으로 모델 7255로 불리는 형식 3척

을 베트남 중·남부에 투입했다.

이 타입은 영국의 SRN5(미국명 SK5)로 부터 발달한것으로 127밀리 기관총 2문, 40밀리 척탄 발사기를 장치하고 있었다.

엔진은 1,050마력으로 이것으로 시속90km라는 고속을 발휘할 수가 있으며, 베트남의 소부대와 소형주정 부대를 공격했다. 베트남 중부, 남부에는 대소의 하천, 습지대, 호수가 많으므로 호버크라프트는 크게 활약한바 있었다. 1척의 크라프트가 한 달간에 60척이상의 무장 소형주정을 파괴한 예도 있었다. 그 반면 크라프트는 소음이 크고 적에게 그 존재를 탐지 당하기 쉬운점, 선체를 가볍게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장갑을 하기가 어렵고 구조가 복잡하여 정비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이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도 미국의 전투용 호버는 연 6척이 1년간에 걸쳐 「베트남 투어」를 실시하여, 이 무기가 충분히 쓸



측면도

모가 있다는 것을 입증 했다.

(2) 이라크 군의 경우

1980년 부터 8년간에 걸쳐 계속된 이란·이라크 전쟁에 있어 이란군은 10여척의 호버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 크라프트의 형태는 영국제의 SR-N6이다. 이것은 미국이 사용한 SR-N5의 스트레치(장동형)로 성능 면에서는 거의 같다. 단, 미군은 처음부터 전투용으로서 호버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비해서 이란군은 민간용의 크라프트에 무기를 탑재하여 투입했다. 공간적으로는 N5보다 N6이 넓으므로 기관포 4문, 박격포 2문을 장비하고 있었다.

이란군이 촬영한 필름에 의하면 이 N6은 모두 페르시아만 연안의 습지대를 둘러싼 전투에서 사용되

고 있었다. 즉 이란·이라크 전쟁의 최대 격전지 호람샤 주변의 전투이다. 이 습지대(석유의 산출지이기도 하다)에서는 양군의 엔진이 부착된 소형선을 대량으로 투입하여 적의 거점 쟁탈을 수년에 걸쳐 되풀이 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전투에서는 호버크라프트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란은 일찍부터 이 무기의 수륙양용성에 착안하여 영국으로부터 10여척을 구입한바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SR-N6보다 강력한 BN-7형을 구입했어야 했다. BN-7형은 영국이 군용으로 개발한 크라프트로 3인치포를 장비하고 있으며, 최대시속 120km의 고속발휘가 가능했다.

이란의 팔레비국왕은 5척의 BN-7을 영국에 발주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완성되지 않는 사이에 이슬람혁

명이 발발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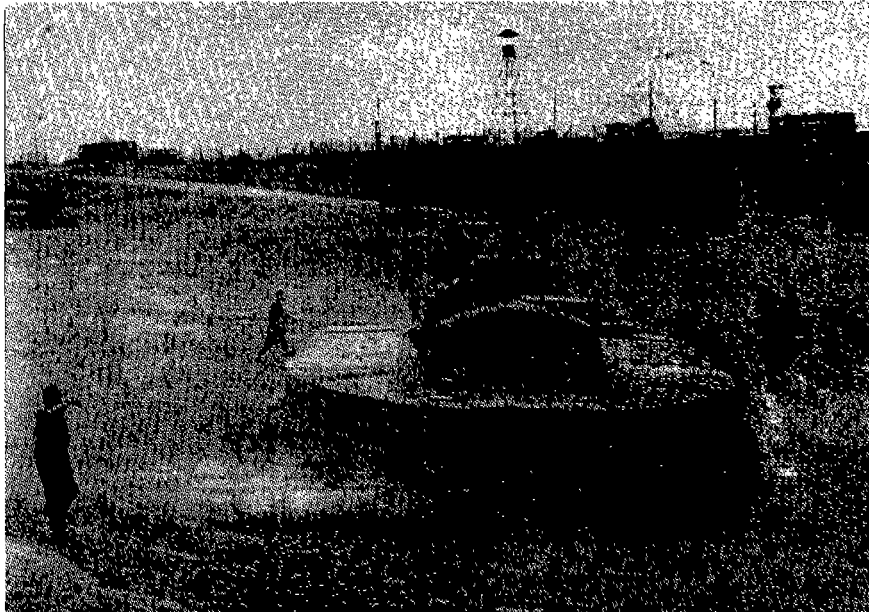
BN-7은 국영기업 BNC가 가장 힘을 경주한 것 이었으며 당시 냉전상태에 있는 소련조차 많은 흥미를 나타내고 있었다. 만약 이란이 많은 BN-7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남부전선의 승패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100노트의 꿈

금후 군용 전투용 호버크라프트의 개발은 어떻게 진행될까 수륙양용 형태는 점차 줄어 들것이며, 수상고속형이 늘어날 것만 같은 기운이다.

일반적으로 함정에서는 최대속력은 30노트(56킬로/시)이며, 수중익전용도 45노트(83킬로/시)가 하나의 피크이다. 에어컷션방식의 배 같은면 적어도 50노트(93킬로/시)는 가능하며, 보다 대형화하면 100노트(180킬로/시)도 결코 꿈만은 아니다.

이때문에 미국, 영국, 러시아, 스웨덴, 일본은 이분야의 연구에 착수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이미 에어컷션 소해정을 실용화하여 그 스텔스화도 추진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 군함의 에어컷션/호버크라프트화는 피할수 없게 될것 같다.



실전에서 활약하는 모양, 탱크처럼 돌진한다.